

まるごと 日本のことばと文化

中級 1(B1)

スクリプト・テキストの翻訳

(韓国語)

스크립트 및 텍스트 번역

(한국어)

Topic 1 처음 만나는 사람과

PART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그럼,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①
야마시타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시타 가르시아 도모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결혼해 벌써 30 년 정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음..., 지금은 여행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남 돕는 걸 좋아해서 지금의 일은 저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는 그림 그리기인데, 주말에는 보통 근처 공원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성격은 비교적 사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남성	저어, 좀 못 알아들었는데요, 성격은... 뭐라고 했죠?
야마시타	성격은 '사교적',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성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그럼,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②
기무라	안녕하세요. 음..., 왠지 긴장되네요. 저는 기무라입니다. 아, 기무라 켄입니다. 켄은 '건강'의 '건'입니다. 대학교 3 학년인데요, 지금은 유학 중이고 이곳 어학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취미, 취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나? 음...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 곳을 여행 가고 싶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 정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	그럼, 다음 분은....
	③
사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와다 노부코입니다. 3 개월 전에 남편의 일과 관련하여 가족 모두 이곳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8 살짜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음, 저도 일본에서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일본과 달리 집이 넓어서 청소가 힘듭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일본인 학교가 아니라 국제학교에 입학시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오는 프린트 물 읽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일본에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생활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	그럼, 마지막 분, 부탁드립니다.
	④
마쓰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쓰다 도시노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광고 대리점에 근무했는데, 음..., 정년 퇴직한 후 여기로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는 해외에서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아내는 매일 쇼핑이라든지 친구와 식사 모임 등 다양한 곳에 외출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집에 있는 일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모임이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참가했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	미안합니다만,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디에서 일했다고 했죠?

마쓰다	광고 대리점입니다. 음..., CF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성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PART 2 저기, 실례지만..

캐시	저어, 실례지만, 일본 분이시죠?
니시야마	네, 그렇습니다만.
캐시	역시 아까 핸드폰으로 일본어를 하시길래
니시야마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캐시	네,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캐시라고 합니다.
니시야마	음..이런 곳에서 일본어, 놀라워요. 아, 저는 니시야마예요.
캐시	니시야마 씨는 이 요가 클래스에 자주 와 계시네요. 댁은 가깝습니까?
니시야마	네, 바로 저기 아파트에 살아요. 캐시 씨는요?
캐시	저도 바로 근처에 살아요. 실례지만, 니시야마 씨는, 호주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니시야마	주부입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이 이곳으로 전근 가서 가족끼리 도쿄에서 이사왔어요. 캐시 씨, 그건 그렇고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어디서 공부하고 계세요?
캐시	아니요, 아직 서툴러요. 지금은 시드니에 있는 일본 문화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일본 요리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일본 복도 배우고 있어요.
니시야마	헤, 일본 복이요? 대단하네요
캐시	니시야마 씨,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일본어로 말동무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도 일본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니시야마	그럼요. 저도 이쪽에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네요.
캐시	잘됐네요. 그럼 나중에 메일주소 가르쳐줘요.

PART 3 처음 뵙겠습니다. 마이라고 합니다.

사회	그럼, 마이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	처음 뵙겠습니다. 마이라고합니다. 아..." 일본어로 말하기 동호회"에 참가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음. 3년전입니다. 계기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 것이었어요. 음... 일이 끝난 후에 일본어 공부하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 덕분에 즐겁게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회사에서 수출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 일본어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인 스텝과 여러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동호회에 참가한 것은,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 취미는 맛집 투어입니다. 요리는 먹는 것도 만드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수다 떠는 것도 매우 좋아하니 계속 말 걸어주세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

PART 4 부담 없이 팔로우 해주세요.

카오린	해외 생활 4년째 주부. 런던 거주. 7살 딸의 엄마. 유럽에서의 일상을 올립니다. 지금의 관심은 딸의 일본어실력유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케이크 만들기, 줌바, 미술관투어.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알게 되면 좋겠어요. 부디 부담 없이 팔로우 해 주세요!
오가와라 히로시	모 사립 대학에서 일하는 일본어 강사. 전문분야는 일본어음성교육. 저서는 "대단해 일본어", "음성을 배우자" 등. 현재 인터넷에서 베트남어를 학습 중. 올리는 내용은 일이라는 별로 관계없는 음악 관련 중심. 좋아하는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 장래의 꿈은, 남쪽 섬에 이주하여 유유자적하는 것.
부-짱	온천, 일본 술, 성악, 여행을 사랑하는 직장인. 천칭자리, O형. 현재 일본어의 재미에 빠지는 중. 주말에는 출신지역의 자원봉사교실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이 낙.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요. 좋아하는 영화는 "카모메 식당"
푸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싱가포르 출신, 토론토 거주. 이 계정에서는 일본어로 글을 올립니다. 일본어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일본 분이나 세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과 여러가지 정보교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해요!

Topic 2 추천 요리

PART 1 여기는 특히 생선이 맛있어.

듣는 사람	일본 요리집이라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남성 A	글쎄, 맛있는 일본 요리라면 '무사시'가 으뜸이라고 생각해. 요리사가 일본인이어서 일본과 다르지 않은 진짜 일본 요리를 먹을 수 있거든.
듣는 사람	그렇군요.
남성 A	덴푸라나 스키야키도 맛있지만, 여기는 특히 생선이 맛있지.
듣는 사람	우마이(うまい)?
남성 A	아! 맛있다는 뜻이야. 생선이 아주 신선해서 일본의 일반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생선회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성 D	그렇군요.

남성 A	게다가 일본 옷을 입은 점원의 서비스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정중하고 말이지. 단, 아주 비싸더군.
여성 C	아~.
여성 D	아아, 맞아, 맞아.
	②
남성 B	저렴한 가게가 좋다면 <OISHI>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죠. 바이킹 방식입니다.
듣는 사람	바이킹이 뭐죠?
남성 B	아, 뷔페, 마음대로 먹기로, 뭘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꺼번에 다양한 것을 많이 먹고 싶을 때에는 추천합니다.
듣는 사람	음~.
남성 B	단, 일본의 일본요리와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말이지요. 계란말이는 오믈렛 같고, 초밥 같은 경우에는 생선 초밥은 거의 없고, 치킨가스나 아보카도 마키즈시뿐....
남성 A	아!
남성 B	하지만 맛은 나쁘지 않아요.
	③
여성 C	그리고 보니 요즘 이쪽에서도 일본의 라면이 유행하고 있죠. 최근에 생긴 '타케미(たけみ)'라는 가게 말인데요, 여기 라면은 진짜배기예요.
듣는 사람	음~.
남성 A	아~, 거기!
여성 C	일본의 유명한 가게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	그런가요?
여성 C	닭이나 채소로 우려낸 다시(だし)를 사용하고....
듣는 사람	다시(だし)?
여성 C	아~, 국물 말이에요. 이게 맛있거든요.
듣는 사람	흐음~.
여성 C	값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좋아요. 다만, 항상 사람이 많은데, 특히 휴일에 가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그게 단점이지요.
여성 D	그러게요.
	④
여성 D	의외로 알려지지 않는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베이커리 마이 러브라는 빵가게예요.
듣는 사람	빵?
여성 D	빵 가게 하면 별로 일본요리라는 느낌이 안 들겠지만, 파는 것이 모두 일본풍의 빵이니까 꼭 가 보세요. 일본의 빵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여성 C	그렇죠.
여성 D	뭘, 좀 비싸긴 하지만요. 그래도 팔소 빵이나 멜론 빵이나 야키소바 빵이나, 다양하기도 하고요.
듣는 사람	아~, 그런가요?
여성 D	빵 뿐만이 아니라 경단 같은 화과자도 팔아요. 게다가 가게 안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잠시 차를 마시기도 좋으려나.

PART 2 오코노미야키 가루는...

유파카	어디 보자, 오코노미야키 가루는... 음, 없나 봐요
다카츄카	늘 있는데 말이지. 어쩔 수 없어, 그럼 밀가루로 만듭시다. 밀가루면 집에 있고.
유파카	네? 밀가루로 해도 돼요?
다카츄카	네. 밀가루에 이 분말 육수를 섞으면 오코노미야키를 만들 수 있어요.
유파카	이거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다카츄카	밀가루와 물과 달걀을 잘 섞고 육수 한 숟가락을 넣으면 괜찮아.
유파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뭐였죠? 위에다 뿌리는, 갈색, 생선의...
다카츄카	가쓰오부시(가다랭이포)? 맞아, 가쓰오부시도 사야죠. 까먹을 뻔했네
유파카	그리고 소스도 사는 게 좋겠죠. 음 돈가스 소스...추노 소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다카츄카	음~ 여기 있다. 봐봐, 이거 이거. '오타후쿠 소스'. 약간 달고 오코노미야키 전용이랍니다.
유파카	호오.
다카츄카	그리고 계란, 양배추, 고기는 다 집에 있고... 그 외에, 오코노미야키 속에 좋은 재료, 뭔가 있나요?
유파카	글쎄요, 조개는 어때요? 태국에는 호이토틀라는 요리가 있는데, 조개를 넣은 오코노미야키 같은 요리예요. 분명 일본의 오코노미야키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다카츄카	아, 그거 좋네요. 조개는 어디서 팔지...
유파카	조개는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시장에서 사는 것이 싸고 신선할 것 같아요.
다카츄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 휘토틀라는 요리도 알려줬으면 .
유파카	그럼 고수나 칠리소스도 사 갑시다.

PART 3 꼭 드셔봐 주세요.

출폰	모리 씨, 오늘밤에 키르기스요리 식당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모리	와. 키르기스 요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출폰	글쎄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본 분의 입에 맞는 건 라그만인 것 같네요.
모리	오..라그만이요?
출폰	네. 라그만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면으로, 그러니까 해서 일본의 우동과 닮았어요.이 면을 데쳐서 그 위에 볶은 고기와 야채를 올려요. 고기에서 육즙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맛있어요. 파슬리를 뿌려서 먹기도 하죠.
모리	아하..
출폰	사실, 라그만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도 있어서, 나라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모리	그렇군요.
출폰	일본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키르기스 요리를 물으면 대부분 라그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꼭 드셔봐 주세요.
모리	그거 기대되네요.

PART 4 감자를 넣는 것이 포인트

감자가 들어가는 오코노미야키
보통 때와 다른 오코노미야키. 감자를 넣는 것이 포인트!
재료(2 인분)
오코노미야키 가루 100 그램
달걀 한 개
물 100cc
얇게 썰은 고기 200 그램
양배추 200 그램
감자 1 개
오코노미야키 소스, 마요네즈 적당량
파래, 가다랭이포, 초생강 적당량
1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는다. 조금 식힌 후에 잘 으갠다.
2
양배추를 채 썰어 놓는다
3
큰 보울에 오코노미야키 가루, 물, 달걀, 1 의 감자를 넣어 잘 섞는다. 잘 섞이면 그 위에 2 의 양배추를 넣고 뒤섞는다.
4
프라이팬이나 철판에서 고기를 굽는다.
5
프라이팬이나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가열한다. 중불로 하고 3 의 재료를 얇게 펼치며 넣는다.
6
뒷면이 굳어져오면, 4 의 고기를 얹는다.
7
앞면도 굳어지면, 뒤집어서 다시 굽는다.
8
오코노미야키 소스와 마요네즈를 바르고, 취향대로 ★을 뿌리면 완성!
요령 · 포인트
재료는 그 밖에도 새우, 다진 고기, 옥수수, 치즈, 파 등. 자유롭게 넣어 보세요. 오코노미야키 소스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보통의 소스에 케첩을 조금 섞으면 비슷해 집니다.
이 레시피의 탄생
해외 부임 중에 오코노미야키가 먹고 싶어져서, 만들어 봤습니다. 감자를 넣어봤더니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PART 5 "간단 스키야키" 만드는 법

간단 스키야키 (2 인분)
재료
얇게 썰은 고기 300 그램
대파 한 줄
배추 200 그램
실곤약 1 봉지
달걀 2 개
두부 한 모
스키야키 소스 1 병(없을 때는 물, 간장, 설탕, 술을 50cc 정도 섞어서 만든다)
만드는 법
1 대파, 배추, 실 곤약,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2 냄비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는다
3 스키야키 소스를 넣는다.
4 대파, 배추, 실 곤약, 두부를 넣는다 → 5 분 지나면 완성!
먹는 법: 날달걀에 찍어서 먹는다. 그대로 먹어도 맛있다.

Topic 3 내가 좋아하는 음악

PART 1 역시 엔카쵸.

	①
듣는 사람	기요타 씨.
기요타	왜요?
듣는 사람	저어, 제가 일본의 음악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뭐가 좋을까요?
기요타	글쎄요,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도(鼓童)'라고 아세요?
듣는 사람	아뇨,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기요타	일본의 유명한 '와다이코' 집단이에요.
듣는 사람	네? 와다이코..
기요타	와다이코 집단. 그러니까 일본의 북 그룹이죠.
듣는 사람	아~.
기요타	저는 두 번 갔는데요, 아주 좋았어요. 여럿이 울리는 북은 정말 박력이 있고, 게다가 모두의 리듬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맞은 걸 보면 분명 엄청나게 연습했을 거예요.
듣는 사람	아~, 그런가요
	②
듣는 사람	애, 사나에, 좋아하는 일본 가수 있니? 뭐 좀 물어보려고....
사나에	일본 가수 중에는 음~, 난 코부쿠로가 좋아. 알아?
듣는 사람	아니, 몰라. J-POP?
사나에	응. 그런데 말야 J-POP 이라고 해도 아이돌 계열이나 랩 계열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코부쿠로는 노래를 들려 주는 계열(?)이랄까.

듣는 사람	뭐~, 그게 뭐야?
사나에	남성 듀오 그룹인데, 두 사람 모두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노래 멜로디도 멋지고, 그걸 완벽하게 위 아래에서 하모니를 이루거든.
듣는 사람	뭐? 위아래 화...
사나에	위아래로 화음...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멜로디가 잘 어울려서 멋지거든.
듣는 사람	흐음.
사나에	가사도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깊은 맛이 있어. <벚꽃>이나 <여기서밖에 피지 않는 꽃> 같은 노래는 진정으로 감동받거든. 들어 봐. CD 빌려 줄게.
듣는 사람	응.
	③
듣는 사람	우에노 씨, 일본 음악 추천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우에노	추천이요? 글썄요, 아,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으로는 X JAPAN 을 들어 주었으면 하네요.
듣는 사람	X JAPAN 이요?
우에노	네. 옛날 밴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도 전혀 오래된 느낌이 아니죠.
듣는 사람	호오~.
우에노	이미지는 말하자면 비주얼 계통이지만....
듣는 사람	네? 비주..
우에노	비주얼 계통. 의상이나 머리 모양 등이 화려한 느낌의 밴드인데, 그래도 실은 음악도 굉장하죠.
듣는 사람	그런가요?
우에노	멜로디가 멋지고, 알기 쉽고, 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기타나 드럼 등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볍게 연주하거든요.
듣는 사람	와~.
우에노	추천 음악은 <Silent Jealousy>예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휘감는 YOSHIKI 의 드럼이 너무너무 멋져요.
듣는 사람	와, 그렇군요.
	④
듣는 사람	저는 일본 음악에 흥미가 있는데요, 마쓰모토 씨는 뭘 좋아하세요?
마쓰모토	음~, 글썄, 역시나 엔카겠네요.
듣는 사람	엔카요?
마쓰모토	젊은 사람은 별로 듣지 않는 모양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엔카가 마음에 스며들거든.
듣는 사람	아~.
마쓰모토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요시이쿠조인가?
듣는 사람	요시, 이쿠조...요?
마쓰모토	응. <설국>이나 <술이야> 같은 게 비교적 유명할 걸.
듣는 사람	아~.
마쓰모토	가사가 말야. 전형적인 엔카의 세계라는 느낌이거든.

듣는 사람	아~.
마쓰모토	남자와 여자가 헤어진다거나 술을 마시면서 옛날의 꿈을 추억한다거나. 멜로디가 단순해서 노래방에서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어려워.
듣는 사람	왜 그렇죠?
마쓰모토	실력 있는 사람이 부르지 않으면 단순해서 시시해져 버리게든.
듣는 사람	아~, 그렇군요.

PART 2 좋은 노래는 빛 바래지 않죠

무라카미	유딧 씨, 이번 토요일 저녁 시간 돼? 다 같이 노래방 가는데 같이 어때? 유딧 씨 노래방 좋아한다고 했잖아.
유딧	노래방이요? 네, 꼭 참석하게 해 주세요. 옛날에 일본 유학할 때 자주 갔었어요. 근데 부다페스트에도 노래방이 있어요?
무라카미	응. 일본식 노래방에 일본 노래도 많이 있어. 유딧 씨는 일본 노래 알아?
유딧	물론이죠. 드림스 컴 트루라던가, 나카지마 미유키라던가, 사잔이라던가, 자주 불렀습니다. 멜로디가 예쁘죠. '시대'라든지 '사랑스러운 엘리'라든지...
무라카미	아 그림다. 근데 좀 오래되지 않았나?
유딧	좋은 노래는 빛 바래지 않더라고요. 무라카미 씨는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무라카미	역시 엔카일까. 그리고 취하면 애니 송. 이거 정석인데?
유딧	아, 그렇습니까? 엔카도 애니 송도 일본다워서 저는 좋아합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볼 때가 있어요.
무라카미	사토 씨도 가지?
사토	음, 죄송합니다. 저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 듣는 거라면 좋은데, 항상 무리하게 노래 부르게 해서.
유딧	그런 거 안 해요. 부르기 싫은 사람에게 부르게 하다니. 일본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마시고 얘기하고 즐겁시다.
사토	그래요? 음, 그럼 나도 가볼까.
무라카미	됐다, 이걸로 2명 추가네.

PART 3 그녀의 대단한 점은..

니시카와	자넷 씨, 무엇을 듣고 있어요?
자넷	레이디 가가요. 좋아요.
니시카와	아... 가가의 어떤 점이 좋아요?
자넷	글쎄요. 가가는 독특한 패션으로 유명한데, 그녀의 음악은 매우 레벨이 높아요.
니시카와	아하.그렇군요.
자넷	노래도 피아노도 잘하지만, 그녀의 대단한 점은 그러니까... 자신의 노래를 전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니시카와	와..
자넷	멜로디나 리듬이 개성적이고, 음...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니시카와	아하..

자넷	게다가, 뮤직비디오도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두근 두근거려요 .
니시카와	그래요?
자넷	그것뿐만 아니라, 가가는 음...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니시카와 씨도 꼭 들어보세요.
니시카와	그런가요? 그럼 다음에 인터넷으로 봐봐야겠네요.

PART 4 BEGIN 의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카오루의 블로그
"BEGIN 의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저번 주 토요일, 친구인 마키가 권해서 갔다 왔어요. BEGIN 의 콘서트 @사이타마 현국제센터홀
BEGIN 의 곡은 전부터 알고 있어서, 노래방에서도 가끔씩 부를 정도였는데, 기회가 없어서 콘서트는 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기대됐어요.
행사장에 가니, 관객층이 넓어서 놀랐어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이것도 BEGIN 의 특징이려나?
자, 콘서트 전반은 "그리워서"를 시작으로 차분하게 듣게 하는 곡이 중심이었어요. 뭐 보컬의 히가 씨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바뀌죠.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후반은 "눈물이 주룩주룩" "산신의 꽃"등 오키나와곡의 대행진. 마치 오키나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앵콜 곡은 제가 좋아하는 "섬사람의 보물". 함께 춤추고 함성도 지르고, 매우 만족했어요.
그리고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다정했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아이가 울었는데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 히가 씨도 "발라드 타임이 되면, 웬지 아이가 잘 운단 말이지"라고 웃어 넘기거나, 뭔가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BEGIN 의 팬이 되 버렸어요. 6 월에는 오키나와에서 "노래의 날 콘서트"가 매년 열리고 있어서 꼭 갈 계획! 하지만 티켓 구할 수 있으려나.

PART 5 같이 가지 않을래?

BEGIN 콘서트
카오루에게
잘 지내? 실은 BEGIN 의 콘서트 티켓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4 월 12 일, 시간은 오후 5 시 반부터. 장소는 사이타마현 국제 센터홀. 카오루도 BEGIN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거나 하고 좋아했었지? BEGIN 은 역시 콘서트에서 들어야지. 분위기도 좋고! 분명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같이 가자!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키

Topic 4 온천에 가자

PART 1 지금, 저는 온천에 와 있습니다.

①

안녕하세요~! <일본 마루고토 온천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나가노 현의 '지옥 계곡 온천'에 와 있습니다. 이 '지옥 계곡 온천'은 어떤 동물로 유명하죠. 그것은... 보세요,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어요. 귀여워! 이곳의 원숭이, 해외에서는 '스노우 몽키(Snow monkey)'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대네요. 그리고 이 노천 온천, 놀랍게도 원숭이 전용이에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기분 좋아 보이죠. 사람은 요 아래에 있는 온천 여관의 노천 온천에 들어갈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래도 추운 겨울날에는 원숭이가 인간 전용 온천에 들어가려고 오는 일도 있다네요. 운이 좋으면 원숭이와 혼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②

하야, 간신히 도착했네! 버스를 내리고 나서 산길을 4시간 반 걸었어요. 등산 이후에나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이 온천은 북 알프스(일본의 도야마, 니가타, 기후, 나가노 등 네 개 현에 걸쳐 있는 히다산맥의 별칭)의 하쿠바야리 온천입니다. 이곳은 여름 시즌만 운영하는 산장에 있는 온천입니다. 아무래도 힘든 길이었습시다. 이려다 죽는 줄 알았습시다. 하지만 이만큼 고생하더라도 여기에 오고 싶은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노천 온천. 표고 2,100m에 있는 이 온천은 바로 구름 위의 노천 온천입니다. 정말 굉장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놀랍게도 온천에 들어가 있으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저도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려고 합니다. 꼭 맑았으면!

③

오늘 소개드릴 온천은 아키타 현에 있는 뉴토온천향의 쓰루노유온천. 에도시대부터 300 년 이상이나 이어진 유서 깊은 온천입니다. 자연 속 넓은 노천 온천에는 새하얗게 흐려진 온천수. 이 온천수는 아주 몸에 좋아요. 오래된 여관 건물은 에도시대부터 남아 있다고 해요. 옛 분위기 그대로죠. 방 안에는 이로리(囲炉裏, 방바닥 마룻바닥을 네모지게 파내고 난방 취사용의 불을 피우게 만든 장치)도 있어서, 저녁식사는 이 이로리에서 먹어요. 이곳에 있으면 마치 에도시대로 시간 이동을 한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숨겨진 온천'의 분위기를 찾는 사람으로 주말엔 반 년 전부터 예약이 꽉 찼대네요.

④

네, 여기는 와카야마 현 시라하마 온천이에요. 지금 '사키노유'라는 노천 온천에 와 있어요. 온통 눈앞이 바다, 바다, 바다예요. 바다 조망이죠. 어때세요, 이 경치! 그럼 저도 들어가 보고 싶네요. (온천에 들어가는 풍덩 소리) 와아, 행복해. 너무 기분 좋아. 날씨도 좋고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느낌이에요. 후우~. 그런데 여행의 즐거움은 여관의 식사죠. 물론 메인 요리는 해산물! 신선한 생선에..., 짜잔! 이세 새우예요. 크~죠. 바로 먹어 보죠. 으음~, 달다! 입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녹는 느낌으로, 와아, 정말 너무 행복해

PART 2 일본의 여관은 처음입니다.

크로이와 (온천여관 여장)	네, 구사쓰 온천 삼수관입니다
요기	아, 여보세요, 저기, 실례지만 다음 주 23 일에 예약한 요기 샤르마라고 합니다만.
크로이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음, 네, 요기 샤르마 님, 3 월 23 일 2 분이시군요.
요기	네. 식사때문에, 실은 지난 주에 메일을 썼습니다만, 답장이 없어서 지금 인도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크로이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요기	네, 그래서... 저기... 저희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식사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쓰지 말고 해 주시겠어요?
크로이와	그렇군요, 식사는 생선회와 스키야키와 튀김 등이 있습니다만, 스키야키에 고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럼 대신 유도우후를 드릴까요?
요기	유도우후는... 저... 어떤 요리입니까?
크로이와	두부를 냄비에 넣어 먹는 요리인데 고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기	아,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리고. 저어... 방인데요... 개인 욕실이 딸린 방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크로이와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방이 없어요. 욕실은 모두 온천에 있는 대욕장을 사용해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요기	그렇군요. 저는 괜찮는데 아내가 일본의 료칸은 처음이라 다른 사람과 목욕하는 것은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행 사이트에는 개인 욕실이 있다고 써 있었는데요.
크로이와	아, 그렇다면 가족 욕실 말씀이시군요. 가족끼리 열쇠를 잠겨 넣는 욕조가 있으므로, 여기에 오셨을 때 프런트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기	아 그거 다행이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크로이와	감사했습니다. 내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PART 3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오오타	아이니 씨, 여행 팸플릿인가요?
아이니	네, 일본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오오타	그래요? 일본 어디에 가고 싶어요?
아이니	도쿄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오다이바에 "오오에도 온천"이에요.
오오타	왜요?
아이니	친구에게 들었는데요, 온천 테마 파크 같은 곳이고 좋아하는 유타카를 빌릴 수 있대요.

오오타	그래요?
아이니	안이 에도 (도쿄의 옛 지명)의 오래된 동네 같이 되어있고, 매우 재밌다고 말했었어요. 목욕을 하고, 유카타를 입고, 밥도 먹고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오오타	그래요?
아이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은, "애니메이트" 같은 애니메이션 가게예요.
오오타	아하..
아이니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곳인지 한번 가 보고 싶어요.
오오타	아. 그렇군요.
아이니	애니메이션 DVD 는 뭐든지 다 있다고 하고 캐릭터 굿즈도 재밌을 거 같아요.
오오타	그래요?
아이니	그리고 스카이트리도 가봐야 해요. 전망대에서의 경치가 굉장하고, 야간 조명도 예쁘대요.
오오타	와. 아이니 씨는 잘 알고 있네요.

PART 4 매우 만족했어요.

쿠사츠 온천 산수관의 평. 손님 리뷰
아키코
매우 만족했어요.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만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온천은 하얗고 탁한 물이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져요. 넓은 노천온천도 Good. 요리도 매우 맛있었어요. 그리고 안주인을 시작으로 종업원 분들의 손님접대가 정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꼭 다시 여기에 묵으러 오고 싶어요.
쿠사츠 온천 산수관
이번, 수많은 여관 중에서 산수관을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여관에서는 손님께서 기분 좋게 지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신 것 같아 안심입니다. 손님께서 또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T.H
목욕(욕실)은 좋았어요. 하지만 요리는 별로. 봄벼서 그런지 튀김은 식어 있었어요. 또 프런트에서 종업원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는 것도, 좀 신경 쓰였어요. 체크아웃 할 때도, 손님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런트에 두 명 밖에 없어서 많이 기다렸어야 했어요. 이 가격의 고급여관에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쿠사츠 온천 산수관
이번, 산수관을 이용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묵으실 때 불편한 경험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방문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PART 5 식사에 대한 문의

식사에 대한 문의
쿠사츠 온천 담당자 분께

저는 3 월 23 일에 숙박을 예약한 요기 샤루마라고 합니다.
 식사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주시겠어요?
 답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 요기샤루마

Topic 5 처음 만나는 사람과

PART 1 저기, 들어봐

	①
요코타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듣는 사람	뭐?
요코타	나 요즘 고양이 기르기로 했어.
듣는 사람	고양이?
요코타	응. 요전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일 때문에 급히 해외로 이사하게 됐고, 그래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 어떡하지?" 하는 상담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받아 왔어.
듣는 사람	오호!
요코타	마침 3 개월 전에 집에서 기르던 모르모트가 죽고 말아 쓸쓸했는데, 마침 잘됐어.
듣는 사람	그렇구나.
요코타	그 고양이 아직 어리고 금방 익숙해져서.
듣는 사람	응.
요코타	나한테 야옹 하면서 다가와, 엄청 귀여워.
듣는 사람	그렇구나.
요코타	단지....
듣는 사람	뭐?
요코타	소파 다리 부분을 발톱으로 박박 할퀴어서 '그건 하지마~'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용서해.
	②
이토	일전에 비자 갱신하러 갔는데요....
듣는 사람	아, 비자 말인가요?
이토	그런데 관공서는 왜 이럴까요?
듣는 사람	네?
이토	처음에 갔더니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그 서류는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요."라고 말해도 "그런 거 모른다,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라며 굉장히 완고한 거예요.
듣는 사람	아아, 종종 있지요, 그런 일.
이토	어쩔 수 없으니 그 서류를 준비해서 다른 날에 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다른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난 번에 말해주지 않은 거냐고 생각하게 되지요.

듣는 사람	정말 그렇네요.
이토	결국 몇 번이나 그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니, 적당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었어요.
듣는 사람	그것 참 수고가 많으셨네요.
	③
다케우치	어휴, 저번에 말이지, 자동차 털이범한테 당해버렸어.
듣는 사람	자동차 털이?
다케우치	응, 일요일, 역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뒀는데 말이야.
듣는 사람	응.
다케우치	그 때, 깜박하고 카메라를 대시보드에 두고 와 버렸거든.
듣는 사람	아, 그러면 안 되지.
다케우치	나중에 차에 돌아가 봤더니 카메라가 없어진 거야.
듣는 사람	저런!
다케우치	게다가 잘 보니 자동차 네비게이션 있던 곳이 텅~ 빈 공간이 돼서.
듣는 사람	공간?
다케우치	그래, 아무것도 없게 된 거지. 정말이지, 당했다는 느낌이야.
듣는 사람	심했다.
다케우치	게다가 말이야, 잘 보니 일본에서 가져온 도라에몽 쿠션까지 없어진 거야. 쇼크였어.
	④
나카가와	실은요, 이번에 딸이 결혼하게 됐어요.
듣는 사람	와~ 축하 드려요!
나카가와	뭐, 경사라면 경사스러운 이야기지만.... 다만...
나카가와	단지 그 결혼 상대가 17 살이나 연상에 한 번 이혼한 사람이어서.
듣는 사람	아~.
나카가와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이라는 생각이었죠.
듣는 사람	그렇군요.
나카가와	그런데, 만나 보니...
나카가와	그래도 만나 보니, 멋진 사람이었어요. 일전에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듣는 사람	네.
나카가와	상냥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다만, 남편은...
나카가와	다만 우리 남편은 조금 쇼크였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자기랑 가까워서 "아들이라기 보다는 친구 같다"라며 웃었어요
이토	결국 몇 번이나 그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니, 적당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었어요.
듣는 사람	그것 참 수고가 많으셨네요.

PART 2 최근, 일이 바빠서...

프랑키	체첵 씨, 안녕하세요.
-----	--------------

체첵	안녕하세요 프랭키 씨, 오랜만이야.
프랭키	정말 오랜만이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스카이프 할 시간이 없었거든. 거긴 어때? 몽골은 추워?
체첵	추워. 밖에 영하 30 도야. 인도네시아는 안 추워?
프랭키	여기는 일년 내내 여름이야. 지금은 비 오는 계절이니까, 비가 많이 오지만 말야.
체첵	그리고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폭우가 내려 길이 물로 가득 찼지? 괜찮아?
프랭키	응, 여긴 괜찮아. 그런데 자카르타는 힘들었다고 하더라. 내 친구들도 차가 물에 잠겼대.
체첵	그래. 프랭키 씨는 어때? 요즘
프랭키	엄청 바빠.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게 돼서, 지금은 그 준비로 힘들어. 체첵 씨는요? 아기 몇 살 됐지?
체첵	1살. 그런데 둘 째니까 문제없이 하고 있어. 얼마전야 겨우 걸을 수 있게 됐어.
프랭키	헤~ 축하해요.
체첵	응, 그래서 내년 4월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어.
프랭키	맞아. 그리고 보니 태국의 유파카 씨네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이래.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더라.
체첵	음,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 다시 일본에 가고 싶다.
프랭키	응,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외국 친구와 바로 대화할 수 있고, 일본 정보도 들어오고, 편리해졌지.
체첵	그러네. 아, 미안해, 아이가 일어났어. 울고 있네. 그럼 오늘은 이만. 또 보자.
프랭키	응, 또. 안녕.

PART 3 요즘, 요가에 빠져 있어요.

최	아, 야마구치 씨 오랜만이에요.
야마구치	아아, 최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최	덕분에 잘 지내요. 저 요즘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야마구치	어머.
최	실은, 저 요즘 요가를 시작했거든요. 핫 요가요. 좋아요.
야마구치	와. 핫 요가? 그게 어떤 거예요?
최	뜨거운 방 안에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야마구치	어머..
최	몸을 천천히 뻗어 가는 건데, 처음에는 잘 안돼서 "아파" "못 하겠어!" 하기만 하고...하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야마구치	그래요?
최	그게, 계속했더니, 저도 점점 할 수 있게 돼서
야마구치	정말요?
최	땀이 줄줄 나고, 끝난 뒤의 샤워가 너무 기분 좋아요.
야마구치	그렇구나.
최	요즘은 밤에도 깊게 잘 수 있게 돼서, 컨디션도 좋아요.
야마구치	아하...

최	추천이에요.
야마구치	그래요? 좋을 것 같네요.

PART 4 저희 집 근황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귀국하고 나서 정확히 1년이 됐네요. 일본은 아직도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쪽은 어떠 신지요. 요전번 생일카드와 사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매우 그리워졌어요. 또 일본어를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희 집의 근황입니다만, 다이가가 대학 1학년이 되고, 올해 4월부터 도쿄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전혀 안하고 빨래도 한 적 없는데 혼자서 생활할 수 있으려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든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유코는 지금은 대학 3학년인데 졸업하기 전에 1년간 워킹 홀리데일로 호주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변함없이 집에서 TV 만 보고 있어요. 모처럼 퇴직하고 자유 시간이 생긴 거라 함께 외출하고 싶어서 제가 콘서트나 미술전시회나 여러가지 권해도 가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저 혼자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E 메일 말인데요, 죄송하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저에게는 역시 편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편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만약 또 일본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세요.
8월 13일 마스다 키누코

Topic 6 만화를 읽자

PART 1 엄청 유명한 만화예요.

	①
듣는 사람	저기, 실례합니다. 일본 분이시죠?
다이스케	아, 네. 그렇습니다만....
유카	네.
듣는 사람	제가 일본 만화를 읽어 보고 싶은데요, 뭐가 좋은 지 몰라서.... 뭔가 추천하는 만화 없을까요?
다이스케	음, 추천이요? 글썄요, 인기 있는 건, 예를 들면 <데스노트>이려나. 여기, 이거요. 재밌어요.
유카	아, <데스노트>, 좋지.
듣는 사람	데스노트? 어떤 만화인가요?
다이스케	음, 데스노트라는 건 사신의 노트를 말하는데, 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사람	아~.
다이스케	주인공은 라이토라는 고등학생인데요, 이 노트를 사용해서 차례차례 사람을 죽이죠.
듣는 사람	아~. 무서운 이야기네요.
다이스케	음~ 하지만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라이토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아무에게도 범인이라고 생각치 못하게 해요.

듣는 사람	아~.
다이스케	하지만 거기에 엄청 머리가 좋은 탐정이 나와서 라이토가 범인인 걸 알아채요.
듣는 사람	아, 탐정이라면, 경찰을 말하는 건가요?
다이스케	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둘의 대결이 정말 두근거리어서 재밌어요.
유카	아~, 맞아~.
듣는 사람	그렇군요.
다이스케	유카는? 추천, 뭐 있어?
	②
유카	내 추천은... 글썄...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만화 아세요?
듣는 사람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유카	그거, 저 엄청 좋아해요. 있네, 있어. 자, 이거요.
듣는 사람	아~ 음악 만화로군요.
유카	네. 피아니스트인 '노다메'라는 여자아이와 치아키라는 지휘자이자 재능 있고 멋진 남자아이와의, 뭐 러브 코미디이죠.
듣는 사람	지휘자라면, 오케스트라의?
유카	네, 맞아요. 그런데 노다메의 캐릭터가 진짜 재미있어서, 아주 칠칠치 못하거나 '카보-' 같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쩔든 웃겨요.
다이스케	맞아 맞아.
듣는 사람	아~, 그렇게 재밌나요?
유카	네. 그런데 거기에 노다메가 피아니스트로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도 있고, 치아키와의 연애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	그렇군요.
다이스케	드라마와 영화로도 됐지.
유카	응. 만화에 앞서 그쪽을 먼저 봐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③
린	저어, 재밌어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도 껴도 될까요?
유카	물론이죠.
다이스케	네 얼마든지요.
린	일본 만화 입문이라면... 역시 추천은 <베루바라>라고 생각해요.
다이스케	<베루바라> 말이죠.
듣는 사람	베루바라?
린	네. '베르사이유의 장미'. 비교적 옛날 만화지만 엄청 유명한 만화예요.
듣는 사람	음~, 어떤 이야기예요?
린	프랑스 혁명 때의 이야기인데요, 히로인은 오스칼이라고, 사실은 여자이지만 남자로 길러진 사람인데 엄청 멋져요.
듣는 사람	아~.
유카	오스칼 멋있죠.
린	네. 오스칼은 처음엔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는 입장이지만....
듣는 사람	마리 앙투아네트요?
린	아, 프랑스의 왕비였던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왕비라면, 왕의 딸이었나요?
린	아니요, 왕의 아내요. 그래서 음~, 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오스칼은 왕의 편에서 국민의 편으로 붙어요.
듣는 사람	아~.
린	그런 역사 드라마 속에서 오스칼과 소꿉친구인 앙드레와의 연애가 있고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에요.
듣는 사람	흐음.
린	자, 여기 있어요. 한 번 읽어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사이 씨는요?
	④
사이	음, 일본 만화의 최고 걸작은 역시 <강철의 연금술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만화요.
듣는 사람	연금...?
사이	연금술. 이 만화 안에서는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 만드는 마법 같은 의미예요.
듣는 사람	음~. 마법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사이	뭐, 일종의 판타지인데요, 주인공 형제가 이 연금술로 죽은 엄마를 되살려 내려고 하는데, 음~, 그런데 실패해서 형은 손을, 동생은 몸 전체를 잃고 말죠. 그래서 원래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 둘이 세계를 여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이스케	재미있죠.
듣는 사람	아~.
사이	그 세계의 설정이 스케일이 커서 빠져들어요. 그 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 생명의 무게감' 같이 깊은 테마가 있어서 엄청 생각하게 돼요.
다이스케	그렇죠.
듣는 사람	음~.
사이	그리고 그림도 예쁘고 읽기 쉬우니까 추천해요.
듣는 사람	그렇군요

PART 2 이건 초파 모자예요.

히가시	안녕하세요, 레옹 씨. 그 모자 재미있네요.
레옹	이거요? 이거 초파 모자예요. 내일부터 있을 만화 엑스포에 이걸 쓰고 갈 거예요.
히가시	초파? 초파 그게 뭐예요?
레옹	선생님 모르세요? 초파는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너무 귀여워요
히가시	원피스구나. 그 만화, 우리 딸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안 읽어봤는데요? 무슨 얘기였죠?
레옹	해적들이 동료들과 함께 세계를 모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도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프랑스어 번역인데요.
히가시	그래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레옹	글쎄요, 음- '원피스'는 친구를 무척 아끼는 이야기예요. 음, 사건이 있어서 싸움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친구끼리의 우정이 이깁니다. 그게 감동적이거든요.

히가시	아, 그렇습니까?
레옹	초파도 처음에는 친구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 선생님 죽는 장면은 정말 몇 번을 읽어도 울어요!
히가시	그, 그래...
레옹	선생님도 이번에 따님의 책을 꼭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감동받을 거예요.
히가시	맞아 근데 몇 십 권이나 있는 거지요? 좀 길지도 모르겠네.
레옹	음-, 그럴지도 모르지만 읽기 시작하면 열중해서 바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가시	그래, 그러면 읽어볼까? 레옹 씨도 그렇게 좋으시다면, 이번에는 일본어로 읽어봐 주세요.
레옹	네, 그럴 거예요!

PART 3 술 좋아하는 덩치 큰 남자 이야기에요.

장	하라 씨는 정말 만화를 좋아하네요
하라	네. 만화가 재밌으니까요. 장 씨도 만화 읽으세요?
장	음... 만화는 별로 안 읽어요. 하지만 중국 고전 만화라면 어렸을 적 읽었어요.
하라	오..예를 들면?
장	그렇네요... 제가 좋아했던 건 "수호지"요.
하라	아..어떤 이야기 인가요?
장	수호지는 음... 108 명의 남자가 나쁜 부자나 권력자들과 싸우는 이야기에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무송이라는 술 좋아하는 덩치 큰 남자의 이야기에요.
하라	술 좋아하는 덩치 큰 남자 이야기요?
장	네. 어느 날 무송은 평소대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는데 가게를 나올 때, 가게 사람에게 "요 앞산에는 사람을 먹는 호랑이가 있으니까 절대 혼자 안가는 게 좋아"라는 말을 들어요. 하지만 무송은 취한 채로 산에 가서 자 버리고 말죠.
하라	아아..
장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무송은 혼자서 그 호랑이와 싸우죠.
하라	오오..
장	그래서 마지막은 호랑이에 올라타서 머리를 두들겨 때리고 호랑이를 해치워 버리는 이야기에요.
하라	와..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PART 4 만화만 읽고 있어서...

만화만 읽고 문학작품을 읽지 않는 딸
고민하는 엄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 학년 딸의 엄마입니다. 저희 딸, 고등학생이 되도 아직도 만화만 읽고

있어서 독서는 거의 하질 않아요. 저는 원래 문학을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 많은 문학작품을 읽었어요. 만화는 그에 비해 내용도 깊지 않고 또 그림뿐이어서 상상력이 빈약해질 것 같아요. 이번 여름 방학에 학교에서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을 읽는 숙제가 나왔다는데, 만화판을 읽고 끝내 버린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제대로 된 문장을 못 읽는 사람이 되 버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사고방식도 이제 낡은 걸까요.
지나가는 사람
만화는 내용이 깊지 않다라고 쓰셨는데, 만화를 실제로 읽은 적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테즈카 오사무의 "불새" 같은 건, 문학작품에 못지않는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읽지 않고 따님을 비판하는 건 좋지 않아요.
만화팬
숙제의 "마음"을 만화로.. 그냥 웃어버렸네요. 머리가 좋은 따님 아닙니까? 소설을 읽는 것보다 그림이 있는 만화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이제 곧 일본사도 비즈니스 매너도 상대성이론도 만화로 읽을 수 있을 테니 독해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대 일지도 몰라요.
후유메 소세키
무라카미 하루키같은 건 지금의 고등학생에게도 읽히는 것 같네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을 은근슬쩍 거실에 두거나, "재밌었어. 너도 읽어 볼래?" 같이 추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리요
고민하는 엄마님은, 만화는 애들이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장르의 만화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만화가 있으면, 성인을 위한 만화도 있어요. 만화도 영화나 소설이랑 같아요. 표현의 방법이 다른 뿐이죠. 만화는 소설같이 다른 미디어에 뒤쳐진다는 생각자체가 틀린 겁니다.

Topic 7 무도에 도전 !

PART 1 저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①
듣는 사람	야마우치 씨, 저 일본 무도에 흥미가 있는데요.... 야마우치 씨 무슨 무도를 하고 계셨죠?
야마우치	네, 저는 유도를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	유도요?
야마우치	네. 역 옆에 도장이 있어서,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 다니고 있어요.
듣는 사람	아, 알아요. 큰 도장 말이죠.
야마우치	네. 도장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대부분이 현지인이고 일본인은 저하고 또 2명 정도인가?
듣는 사람	아~, 현지인이 많군요. 유도는 어때요?
야마우치	글쎄요, 유도의 좋은 점은 노력한 만큼 자신이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점이죠
듣는 사람	그렇군요.
야마우치	연습은 꽤 힘들지만, 땀을 잔뜩 흘리면, 그 후의 맥주가 굉장히 맛있어요.
듣는 사람	그렇군요.
	②
듣는 사람	저는 뭔가 무도를 배우고 싶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나카고메 씨는 가라테를 하고 있었던가요?
나카고메	네, 극진 가라테예요.
듣는 사람	극진...인가요. 뭔가 보통 가라테하고 다른가요?
나카고메	음,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라테의 경우는 상대의 몸에 찌르거나 발차기를 찌르지 않고 직전에 멈추는 게 보통이에요.
듣는 사람	아~.
나카고메	그런데 제가 하는 극진이라면 풀 콘택트라고 해서 실제로 상대방을 찔러요.
듣는 사람	예? 진짜로 찌르는 건가요? 아프지 않아요?
나카고메	아파요. 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몸도 정신도 강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	그렇군요.
나카고메	처음에는 무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이나 어린이도 많이 도장에 와 있으니깐 괜찮아요.
듣는 사람	그렇군요.
나카고메	선생님은 일본에서 수행하고 온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아~.
	③
듣는 사람	이시이 씨, 무슨 무도 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이시이	네, 합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요?
듣는 사람	저도 뭔가 무도를 시작해 보고 싶어서요.
이시이	그렇군요. 합기도, 좋아요. 나도 벌써 30 년 정도 했으려나요.
듣는 사람	꽤 오래 계속 하시는군요.
이시이	네. 합기도는 시합이 없으니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깐 그런 거겠죠.
듣는 사람	아~, 시합이 없는 건가요.
이시이	네.
이시이	승패가 없고 강하고 약하고가 관계없으니깐 열심히 계속하면 누구라도 능숙해질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아~
이시이	게다가 합기도의 기술은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체력이나 체격은 관계가 없어요.
듣는 사람	작은 사람도 괜찮은 것이군요.
이시이	네.
이마이	그래서 여성한테도 인기 있고 나이를 먹어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으니깐 좋지 않아요?
듣는 사람	그렇군요.
	④
질문자	저 뭔가 일본의 무도를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시노자키 씨는 검도를 하고 계셨죠?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시노자키	네. 일본 클럽의 서클에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일본인 뿐만 아니라 검도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이에요. 현지인도 꽤 많이 와요.
질문자	아~.

시노자키	'사무라이'라는 느낌이 나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닐까요?
질문자	아아.
시노자키	하지만 연습은 꽤 진지해요. 검도는 특히 집중력이 중요해서 정신적으로 단련돼요. 그리고 자세도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질문자	그래요?
시노자키	방어구라던가 죽도라던가 필요한 도구가 많은 게 조금 문제지만 처음엔 클럽에서 빌려줘요.
질문자	그렇군요

PART 2 훈련은 무슨 요일에 있을까요?

오제키	Hello !
리사	아, 안녕하세요.
오제키	아, 전화 준 리사 씨군요.
리사	네, 오늘 견학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제키	오제키입니다.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서 보세요.
오제키	어떠셨어요?
리사	네, 너무 움직임이 아름다워서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오제키	괜찮아요. 합기도는 여성도 남성도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도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리사	네, 저... 연습 때 입을 옷 사야 돼요?
오제키	네. 도복은 여러분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티셔츠나 이런 얇은 옷 같은 경우에는 다치기 쉽거든요.
리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스커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있군요.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오제키	아, 하카마군요. 단을 따고 검은 띠가 되면 하카마를 입어요.
리사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도복만 사면 되겠네요. 근데 하카마도 되게 멋있어요.
오제키	그렇네요. 도장에 따라서는, 여성은 초보자부터 입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남녀 모두, 초단부터입니다. 많이 연습하셔서 빨리 잘하세요.
리사	네, 연습은 무슨 요일에 있을까요?
오제키	연습은 매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일반 클래스였습니다만, 초보자 클래스가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리사	그래요? 수요일은 괜찮지만, 월요일은 일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다른 날 오면 안 돼요?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서
오제키	그래요? 요일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나와도 돼요.
리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제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리사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PART 3 어렸을 적,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다키라	좋은 시합이었어요.
마츠이	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농구를 좋아하네요. 근데 필리핀에는 전통적인 스포츠가 뭐가 있나요?
다키라	글쎄요.. 필리핀에는 "아니스"라는 무술 있어요. "에스크리마"라든지 "카리"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세요?
마츠이	아니요. 어떤 무술인가요?
다키라	음.. 아니스는 펜싱과 닮았는데, 맨손으로 하는 것도 봉이나 칼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아.. 무기를 든 상대를 공격을 피해서 그 무기를 사용 못하게 하는 기술도 있죠.
마츠이	오호라.
다키라	아니스는 필리핀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스페인사람들이 오고 유럽의 펜싱과 섞여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고 해요.
마츠이	그래요?
다키라	사실, 아니스는 필리핀의 국기(전통적인 운동)가 되어 있죠.
마츠이	국기예요?
다키라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매우 즐거웠어요. 아는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마츠이	와, 그럼 한번 데려가 주세요.

PART 4 해외로 널리 퍼지는 일본의 무도

해외로 널리 퍼지는 일본의 무도
해외에서도 일본의 무도는 꽤 알려져 있다. 프랑스 유도 인구는 약 80 만명, 일본의 4 배다. 마에다 미츠요가 브라질에 전한 유도는 "브라질인 유술" 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유도뿐만 아니라, 합기도, 가라테, 검도도 지금은 세계로 진출해, 해외에서도 무예의 도장이 눈에 띄는 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무예, 일본에서 멀어지면, 형태가 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유도. 올림픽 종목이 된 유도는, 세세하게 체형 별로 나뉜다. 이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점수를 따는 경기가 됐다. 관객이 알기 쉽도록 파란색 유도복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 향상되면 몸이 작은 사람이라도 큰 사람을 쓰러트릴 수 있는 "능유제강"의 이념인 것이다. 흰 유도복도 "때 묻지않은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유도는 "유도"가 아닌 "JUDO"인 것이다.
본래, 무도의 큰 목적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예절"을 가지고 접하는 것으로 자신도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무도의 정신이다. 승패에 구애되거나, 점수를 따는 방법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무도가 아니다. 이것은 무도와는 다른,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무도가 일본에서 멀어져,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예로 시작되어 예로 끝난다"라고 했던 무도의 본래의 정신을 잃어간다. 캘리포니아 롤 같은 일본과 다른 "SUSHI"가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무도가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해외의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Topic 8 편리한 도구

PART 1 스마트폰 없이는 어디에도 못 간다.

	①
이노우에	미안, 늦어서.
요시무라	드디어 왔구나~.
듣는 사람	장소를 몰랐던 거야?
이노우에	아니, 그건 괜찮았어. Google Map 보면서 왔으니까.
리	편리한 세상이 됐지.
이노우에	맞아, 맞아. 옛날에는 지도를 그려 받거나 전화로 길을 물으며 오곤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제대로 안내해 주니까 말이야.
요시무라	그러게.
이노우에	애초에 나 엄청 길치여서 어디 가고 싶을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일도 곧 잘 있었어.
듣는 사람	아~.
이노우에	하지만 스마트폰 지도라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바로 알잖아. 엄청 편리해. 이젠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아. 필수품이란 느낌이야.
리	맞아, 맞아.
요시무라	나도 그런 것 같아.
타카하시	뭘, 일단 건배하자.
리	그렇네. 건배!
전원	건배!
	②
리	그리고 보니 나도 인터넷 관련된 건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집 컴퓨터를 사용하는 횟수가 엄청 줄었을지도. 일의 리포트 등을 쓰거나 하는 건 물론 컴퓨터지만, 인터넷 관련은 스마트폰 쪽이 편리하지.
요시무라	그렇지.
리	메시지나 메일도 바로 볼 수 있고 Google 같은 곳에서 잠깐 뭔가 조사하거나 할 때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고.
타카하시	조사한다니, 뭘?
리	어, 예를 들면 저번에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용과가 어떤 과일이었지' 하는 얘기가 돼서 사진을 조사한다든가
타카하시	흐음....
이노우에	시시해~.
리	어~ 하지만 이 밖에도 전철 시간을 조사한다든가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 없나 등 여러 가지 가능 하잖아?
듣는 사람	그렇지.
요시무라	맞아, 맞아.
	③

요시무라	그리고 말이야, 의외로 편리한 건 사전 같은 앱 아니야? 우리처럼 외국에 살고 있으면 "어라, 이 단어 뭐 더라" 하고 바로 조사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잖아.
이노우에	있지, 있지.
요시무라	옛날에는 사전을 갖고 다녔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사전 앱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무거운 사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 감사해.
이노우에	맞아, 맞아.
요시무라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까, 여행 갈 때 카메라도 필요 없지.
리	그렇지.
요시무라	손쉽게 무엇이든 찍을 수 있으니까, 난 밥 먹을 때마다 그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버릇이 생겨버렸어.
이노우에	공감해~.
	④
타카하시	뭔가 다들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네.
리	그럼, 다카하시 군은 아냐?
타카하시	응. 나도 스마트폰이지만 딱히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야.
듣는 사람	뭐~! 어째서?
타카하시	휴대전화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 전화도 메일도 할 수 있고. 일단은 카메라도 달려 있으니까 사진도 찍고자 하면 찍을 수 있고 말이야.
요시무라	뭐어? 그것밖에 안 써?
타카하시	그렇다고 보다는 다들 사실 딱히 중요한 일도 없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아냐?
리	그러려나.
타카하시	예를 들면 친구와 둘이 있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
듣는 사람	그렇지도....
이노우에	뭐 그렇지....
타카하시	모처럼 만난 거니까 말이야 그런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이노우에	그럼 다 같이 만난 이 시간에 한 번 더 건배
전원	건배!

PART 2 전자사전을 사려고 생각하는데

폰가로	요시코 씨, 좀 물어봐도 될까요?
요시코	아, 예.
폰가로	이번에 일본어 전자사전을 사려고 하는데 뭔가 좋은 사전 모르세요?
요시코	사전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스마트폰 무료 앱 같은 것도 좋은 게 나온 것 같은데요.
폰가로	음-, 그거라면 일본어는 단어집 같은 것 뿐이에요. 나도 가지고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인 일본어 사전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서.
요시코	그래요? 어떤 게 좋을까요?
폰가로	글쎄요, 단어집이나 회화 집 같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전을 원합니다.

	일본어 학습자용 사전 들어 있는 거 없나요?
요시코	음,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요. 일본어 사전은 기본적으로 모두 일본인 전용이라고 생각해요.
폰가로	음, 어쩔 수 없는 건가. 하지만 봐, 읽을 수 없는 한자가 있을 때, 부수라든지 획수라든지 몰라도, 손으로 써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시코	손 글씨 입력이죠. 지금의 전자 사전은 대체로 손으로 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폰가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액센트를 조사할 수 있는 사전 같은 것이 있을까요? '비'랑 '사탕' 같은 단어 읽을 줄 아는 거. 액센트를 모르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없잖아요.
요시코	잠깐만요. 인터넷으로 봐 볼게요.... 아, 이거라면 액센트 사전, 들어 있군요. 음성도 나올 것 같은데요.
폰가로	있네요. 대단해요. 그리고 음, 이탈리아어와 일본어 사전도 들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지요.
요시코	알아 볼게요. 아 있네요. 이거 이탈리아어 사전이 아예 들어있어요. 손 글씨 입력도 되고, 액센트 사전도 들어가 있고요.
폰가로	오~ 그럼 이걸로 할까? 정말 고마워요.

PART 3 좋은 물건을 샀어요.

토리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못 찾아서 힘들었어요.
스테이시	그래요, 그리고보니 저 요즘 좋은 물건을 샀어요.
토리야마	오.. 좋은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스테이시	찾는 물건 탐지기예요. 일본에서 샀는데, 편리해요. 잃어버린 물건의 장소를 가르쳐줘요.
토리야마	우와. 그거 어떤 물건인가요?
스테이시	그러니까, 본체랑 부속 장치가 있고, 부속 장치는 동전 정도의 크기인데, 그걸 열쇠라든지 잃어버리면 곤란한 물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본체의 버튼을 누르면 부속 장치가 "삐삐뽀"하고 울려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토리야마	와..그런게 있군요.
스테이시	저는 지갑이라든가 차키라든가 집 열쇠에 붙였어요.
토리야마	그래요?
스테이시	예를 들면, 아침에 "아, 차 키가 없어"할 때는 "삐삐 뽀", "지갑이 없어" 일 때는 "삐삐 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토리야마	아하..
스테이시	저,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서, 자주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토리야마	그래도 스테이시 씨라면, 본체를 잃어버릴 거 같은데요.

PART 4 당신이 가장 원하는 도라에몽의 도구는?

랭킹 서치

당신이 가장 원하는 도라에몽의 도구는?
"이런 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른부터 아이까지 일본인에게 사랑받는 도라에몽. 인기의 이유 중 하나는 도라에몽이 미래에서 가지고 온, 꿈을 이뤄주는 비밀 도구죠. 당신도 "이런 도구가 있으면" 하고 한번은 생각한 적이 있을테죠.
이번, 우라와 리서치에서는 "당신이 가장 원하는 도라에몽의 도구는?"이라는 웹상 케이트를 진행했다. 여기에 베스트 3 를 발표한다.
1 위 어디로든 문 영광의 제 1 위로 빛나는 것은,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도구인 "어디로든 문". 문을 열면 그곳은 바로 목적지. "세계의 여러 장소에 여행하고 싶어"라는 낭만적인 이유도 있지만, "매일 통근이 편해질 것 같아" 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2 위 타임머신 과거나 미래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제 2 위. "옛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의 건설을 보고싶어" "미래에 가서 복권 번호를 메모할 거야." "과거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면, 여러가지 충고를 할 수 있는데.." 등 여러가지 답변이 있었다.
3 위 대나무 헬리콥터 3 위의 대나무 헬리콥터는, 머리에 붙이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도구. 도라에몽의 도구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도구라고 말 할 수 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이고, 바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좋아" "잠깐 쇼핑하러 갈 때 편리할 것 같아"등 간편한 점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 "만약 세계가 -라면"이라고 전화에 대고 말하면 그 상상의 세계가 실현되는 "만약에 박스", 시험 때 사용하면 자동으로 정답을 써 주는 "컴퓨터 연필", 일기에 썼던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미리 일기장)" 등, 여러가지 답변이 모여들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도구가 갖고 싶은가?

PART 5 팔아 주세요.

가전제품 팝니다. 삽니다.
●전기밥솥을 팔아주세요. 카요 씨
되도록 여러가지 기능이 달려 있는 것을 찾고 있어요.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고, 쾌속 취사가 가능한 것. 가능하다면 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아요. 4 인가족이라 조금 큰 것을 찾고 있어요. 차로 한시간 이내의 장소라면, 받으러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Topic 9 전통적인 축제

PART 1 축제는 7 일까지 계속됩니다.

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의 가나자와 하쿠만고쿠 축제에 왔습니다. 이 축제는 가나자와의 기초를 만든 무장인 마에다 도시에 공이 1583 년 6 월에 가나자와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여 매년 6 월 첫째 주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가 시작된 것은 전후 1952 년부터로 사실 비교적 새로운 축제입니다. 그건 그렇고 대단한 인파로군요. 모두들 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하쿠만고쿠 행렬을 보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음악대, 사자 춤, 가가토비(에도시대의 소방 조직 흥내), 그리고 당시의 의상을

입은 사무라이 등 여러 행렬이 전부 다 해서 4km 나 이어진답니다. 그리고 행렬의 주역인 마에다 도시이에 공 역으로 매년 유명한 배우가 선정되는 것도 즐길 거리 중 하나입니다.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탄 모습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퍼레이드가 왔군요.

②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도쿄 아사쿠사 파리 시장에 왔습니다. 센소지는 오늘과 내일이 제삿날입니다. 이 날에 참배를 하면 46,000 일 분의 참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음식이나 장난감 노점도 많이 있군요. 굉장히 활기칩니다. 하지만 역시 파리시장 하면 파리쵸. 이쪽에 파리를 파는 노점이 잔뜩 늘어서 있네요. 저도 하나 사 볼까 합니다. 실례합니다, 얼마인가요?

(네, 2,500 엔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가장 큰 것을 샀습니다. 파리의 붉은색이 아름답네요. 이 파리를 보면 아아 여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야말로 여름의 풍물 시네요. 이 파리시장, 오늘과 내일. 7 월 9 일, 10 일 이틀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나와 보세요.

③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오모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곳 아오모리 시는 그저께 8 월 2 일부터 네부터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네부터 축제는 도호쿠 3 대 축제 중 하나로서 알려진 유명한 축제로 매년 300 만 명의 사람이 방문합니다. 이 축제의 메인은 네부터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인형 모양의 수레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크네요. 폭 9m, 높이 5m 라고 합니다. 밤의 어둠에서 빛나는 네부터, 아름답네요. 그리고 네부터라고 하면 춤이쵸. 하네토라고 불리는 춤꾼들이 "랏세라~ 랏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하야시(피리, 대고, 소고, 북의 연주 음악)에 맞춰 춤춥니다. 이 하네토 말인데요, 의상을 빌려 입으면 누구라도 춤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는 7 일까지 계속됩니다.

④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오카야마의 '우라자'라는 축제입니다. '우라자'는 '우라'라고 하는 도깨비와 연관된 축제로, 사실 이 '우라'는 이곳 오카야마에 전해지는 '모모타로' 전설의 기원이랍니다. 매년 8 월 첫째 주 일요일과 그 전날인 토요일에 오카야마 시내에서 열리는 이 축제, 주역은 젊은이들입니다. 퍼레이드는 여러 젊은이들의 그룹이 자신들이 생각해낸 의상을 입고, 자신들이 생각해낸 오리지널 춤을 춘답니다. 이 축제, 역사는 의외로 얕아 시작된 것은 1994 년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댄스가 굉장히 활기차군요. 흥이 오르고 있습니다

PART 2 저도 춤추고 왔어요.

엔도	어, 호날두 형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호날두	아 엔도 씨 오랜만이에요. 실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어제 돌아온 길이에요.
엔도	그래, 좋겠다. 그래서 어땠어? 일본은.
호날두	네, 엄청 더웠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엔도	음, 예를 들면?
호날두	일본 음식도 많이 먹었고 온천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은 아와오도리에 갔던 것이네요.
엔도	에~ 아와오도리. 도쿠시마까지 갔어?

호날두	그럼요. 리오 카니발 못지 않게 대단한 축제라고 들었기 때문에 꼭 한 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엔도	그래, 어땠어?
호날두	네, 너무 좋았어요. 프로팀들의 춤 솜씨는 수준급이었고,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춤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엔도	어, 춤추고 왔구나. 대단해
호날두	리오라면 팀에 들어가지 않으면 메인 회장에서 춤을 출 수 없지요. 하지만 아와오도리는 조금 춤을 배우면 누구나 자유롭게 춤에 참가할 수 있어요. 핫비도 빌려주거든요.
엔도	오~.
호날두	춤추고 있는 사이에 모두가 동료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엔도	「같은 바보라면 춤추지 않으면 손해, 손해」네.
호날두	네, 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다들 여기저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저도 이 고장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술을 많이 대접받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일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로 즐겁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엔도	축제와 술은 호날두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군.

PART 3 축제에서 가장 불만한 것은..

손님	스페인에 살고 있는 동안, 뭔가 축제 보러 가고 싶은데, 추천할 거 있어요?
자원봉사자	글쎄요.. 가장 추천하는 건.. 역시 발렌시아의 "불 축제"요.
손님	불축제라..
자원봉사자	불축제는, 거리 이곳 저곳에 장식한 종이 인형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축제예요. 이 축제는, 발렌시아에서 음.. 매년 3 월 15일부터 19 일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어요.
손님	아하..
자원봉사자	종이 인형은 "파야스" 라고 하는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파야스는 30 미터 이상도 있어요.
손님	대단하네.
자원봉사자	정치가라든지 스포츠선수의 파야스도 있어요. 축제기간에 발렌시아의 거리나 광장에는 파야스가 몇 백개나 들어서 있어요.
손님	와...그래요?
자원봉사자	아 축제의 가장 불만한 것은 3 월 19 일의 산호세의 날의 밤에 파야스에 불이 붙여지고 타오를 때예요.
손님	그렇군요.
자원봉사자	거리 여기저기가 새빨개지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손님	그래요?
자원봉사자	이 축제가 끝나면 봄이 온다고들 하죠.
손님	아하..

자원봉사자	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갈 거면 빨리 예약하는 편이 좋아요.
손님	그래요? 가보고 싶네.

PART 4 첫 크리스마스

남편은
첫 크리스마스
남편의 집에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 집은 켄터키주의 꽤 시골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였어요. 집안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많은 장식들이 장식되어져 있어요. 이건 이전에 야마나카 호의 크리스마스 뮤지엄에서 봤던 풍경 그대로! 남편의 집은 박물관 수준이었어.
그리고 이브의 밤. 트리의 밑에 많이 놓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두 같이 여는데, 이게 사실 꽤 힘들어! 자신 것만 모아서, 맘대로 여는 건 허락되질 않아요. 한 명씩 모두의 앞에서 순서대로 하나 하나씩 열어, 꼭 무언가 코멘트를 말해야 해요.
"그럼 다음 선물. 이건 데이빗이 주디에게 주는 선물이네" "(열어본다) 와, 멋지다. 이 빨간색 스웨터", "10 월에 유럽에 여행 갔을 때, 너한테 어울릴 거 같아서 사 뒀어" "고마워. 이번에 스키 타러 갈 때 입고 갈게" "좋아해줘서 기쁘네" 같은. 독특한 선물을 받아도 "하하. 재밌네." 라든지 이런 걸 고르다니 너 답네" 든지 꼭 무언가 말해야 해요. 영어를 못하는 저에겐 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꼭 계속되기 때문에, 좀처럼 끝나지 않는 답니다.
생각해보면, 친척이 10 명이 모여서, 모두가 각자의 선물을 한다고 하면, 그것 만으로 90 개. 이걸 하나 하나씩 열어서, 코멘트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반정도 끝났을 즈음에 이브의 밤은 깊어지고, 자 오늘은 이제 잡시다. 하고 해산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어제의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 뭔가 선물이 늘어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더니 "이건 산타로부터의 선물이야"라고 선물이 10 개이상 늘어 있고! 그래서 이 "선물교환 마라톤"은 끝없이 계속되었답니다.

PART 5 축제체험

Ronaldo Bayer
일본여행일기 6 번째
토쿠시마에서 아와오도리를 봤어요! 아와오도리는 누구라도 참가 가능한 거 아셨었나요? 합삐도 빌려주고, 춤추는 방법도 알려주기 때문에 처음이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춤추고 있을 동안 신기한 힘이 나오고 정말 최고였어요. 즐거웠어. 여러 사람과 친구가 되고, 일본어로 많이 얘기도 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와오도리는 프로의 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하지만, 역시 함께 춤을 춰야 해! 춰야만 해요. 언젠가 또 가고 싶네.

翻訳

시사일본어사